



# 전라북도 인구유입 활성화 정책연구

김동영 연구위원\_사회문화연구부  
이중섭 연구위원\_사회문화연구부  
송용호 전문연구원\_사회문화연구부

이 자료는 전북연구원 정책과제로 수행한  
“전라북도 인구유입활성화(제2고향만들기) 정책연구”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 1. 연구배경과 목적

### 인구감소 대응정책은 인구증대정책과 인구관리정책으로 구분

지금까지 인구증대정책은 출산율과 출생아수의 증대 및 이민자 확대 등 인구증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활력인구(특히, 청년인구)의 균형배분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정책 등 인구관리에 관한 인구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구기본계획은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종합발전계획과 유사하게 수립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따라 인구유입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단순지원이 아닌 장소의 매력증진을 통한 인구유입정책 필요

인구유입정책은 현재 주소이동에 따른 현금 중심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단시일적 인구증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구유입정책은 단순한 인센티브를 통한 단시일적 인구유입이 아닌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으로 전라북도의 생활입지선택의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지방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전통적 매력을 토대로 청년세대나 출향인, 공공기관 은퇴자들의 전북 회귀 정책 추진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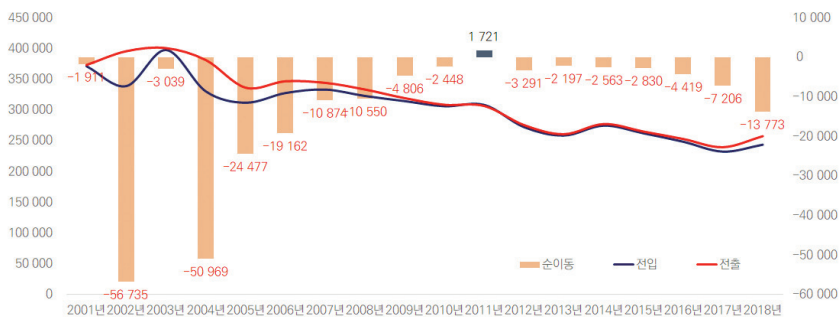
## 2. 인구유입 대상현황

### 전북 출향인

전라북도 인구이동 추이를 보면 순이동인구에서 2011년만 유출보다 유입이 많았고, 2012년 이후 인구유입보다 유출이 더 커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라북도 향우회원 및 출향도민 현황(2018년 12월말 기준)에 의하면 향우회원은 122,440명, 출향도민은 3,461,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통계청 자료를 통해 추정해본 결과 출향민은 180.4만명으로 추정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출생주민 중 전라북도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은 152.5만명이고 전라북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도민은 180.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라북도 연도별 인구유입유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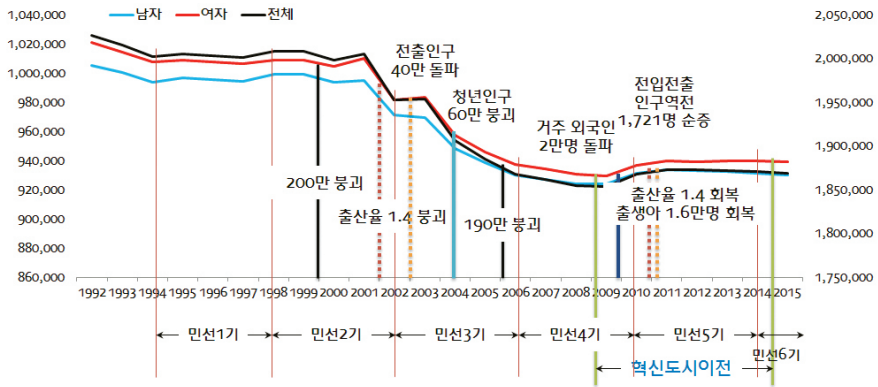


### 도내 공공기관 종사자

전북혁신도시 추진과 공공기관 이주가 원도심 인구나 주변도시 인구를 흡수할 뿐 인구증가에 도움이 안된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추진과 함께 전라북도 인구는 급격한 감소를 멈추고 완만한 감소추세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혁신도시조성이 전라북도 인구감소율을 낮추고 인구유출을 감소하는 인구담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북도에는 혁신도시 12개 이전기관 외에도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전주와 군산세관 등 24개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경우 280명 종사자 중 타지역종사자는 226명에 달하고 있다.

### <전라북도 연도별 인구 및 분야별 인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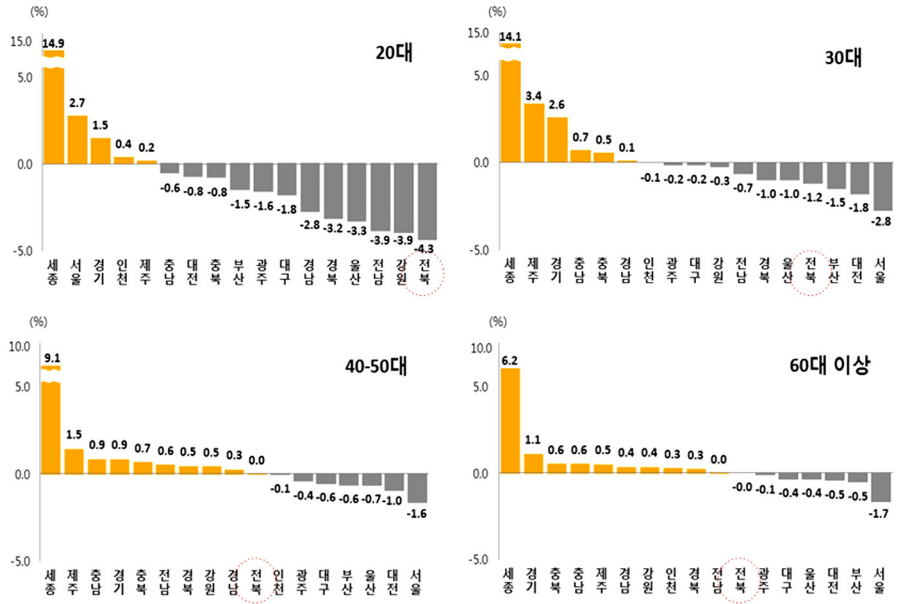


### 도내 및 수도권 대학생(청년)

전라북도 인구유출은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은 마이너스 순이동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대별 순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20대는 전북(-4.3%), 강원·전남(-3.9%) 등 12개 시도에서 순유출되고 세종(14.9%), 서울(2.7%), 경기(1.5%) 등 5개 시도에서 순유입 된 것으로 나타나 전북이 20대 인구유출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20세에서 29세의 청년이 2018년 한해에만 약 9.5천명정도가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았고, 다음으로 30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도 약 2.5천명 정도가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인구이동 현황>



### 3. 정책수요분석

#### 조사개요

전라북도의 인구유입 활성화 정책의 개발을 위해 전라북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집단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설문문항을 개발해 집단별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라북도로의 전입가능성이 높은 출향민, 전라북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과 전라북도가 고향이나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층,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생활여건 및 은퇴 이후 정착지로서의 전라북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방식은 우편조사와 조사원을 활용한 1:1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출향민 265명, 대학생(수도권 대학생 포함) 232명,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 종사자 222명 등 총 7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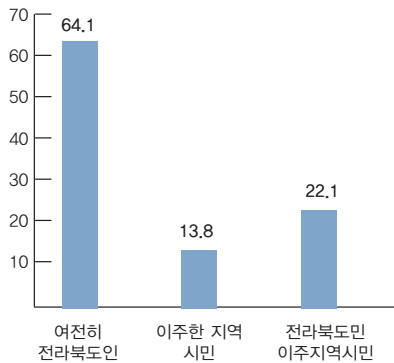
출향민의 경우 전라북도를 떠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232명(87.5%)으로 매우 많았고 그 외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등 수도권 외 지역은 11명(4.2%)에 불과하였다. 전라북도 전출 시 본인만 혼자 이주한 경우가 48.5%, 가족과 함께 동반이주 한 경우 32.0% 순이었고, 전라북도에서 전출을 한 사유로는 전체적으로 직장과 관련한 이유가 45.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육의 문제 16.7%, 가족 및 친지의 권유 15.7%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 정체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전라북도인이다 라는 응답이 64.1%로 가장 많았고, 전라북도민이면서 이주한 지역의 새로운 시민이기도 하다라는 응답 22.1%, 이제는 이주한 지역의 시민이 다라는 응답이 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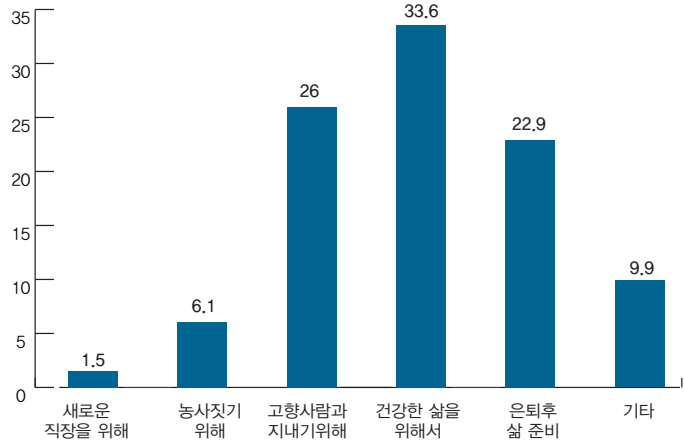
향후 전라북도로 귀향을 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42.6%로 나타났고 귀향의 시기는 은퇴 이후 39.2%, 10년 이후 20.8% 등의 순으로 근 시일내 귀향의 의향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귀향을 한다면 그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가 33.6%로 가장 많았고 귀향을 한다면 부부와 함께 한다는 응답이 78.0%로 가장 많았다. 본인의 자녀를 전라북도로 귀향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향이 없다가 56.9%, 의향이 있는 경우는 43.1%로 귀향을 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도내 대학생의 경우 전라북도가 고향인 사람은 전체적으로 71.5%로 나타났고 전라북도 평균 거주기간은 전체적으로 21.5년 5.7개월로 나타났으며 졸업 이후 생활하고자 하는 지역은 전라북도가 60.2%, 전라북도 외 지역이 39.8%로 나타났다. 졸업 이후 전라북도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60.2%로 높게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전라북도가 익숙해서가 25.0%로 가장 많았다.

### 설문조사 결과



<출향민 본인의 지역 정체성>



<출향민의 전라북도로 귀향하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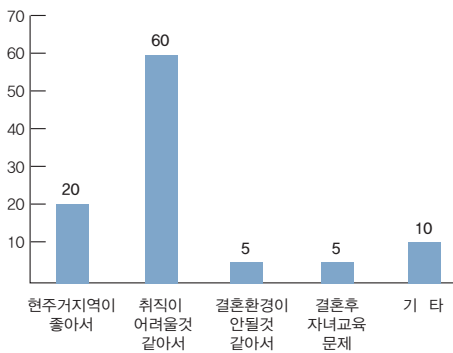
전라북도지역의 대학생들이 타지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청년일자리 제공 등 고용환경의 개선이 42.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화 및 여가시설확충 18.9%, 전북지역의 일자리와 여가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17.4%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어서 같은 급여를 받을 경우 전라북도에서 근무할 의향으로는 그렇다가 66.5%로 높게 나타났고, 전라북도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익숙함이 42.0%로 가장 많았다.

도내출신의 수도권 대학생의 경우 졸업 이후 전라북도로 귀향에 대한 의향은 전체적으로 없는 경우가 65.5%로 매우 높았고, 귀향의향이 있다면 그 시기는 대학 졸업 후 현 거주지에서 취업이 어려울 경우가 41.7%로 많았다. 한편 졸업 이후 귀향을 할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는 전북에서 취직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60.0%로 가장 많았고, 현재 거주지역이 좋아서가 20.0%로 많았다.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 정체성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인이다가 50.0%로 가장 많았고, 뒤 이어 전북도민이면서 현 거주지의 새로운 시민이기도 하다가 46.9%로 많았다. 동일 급여를 받는다면 전북에서 근무할 의향으로는 없다가 51.9%로 의향이 있는 경우 48.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전북에서 근무하고 싶은 경우 그 이유로는 전북의 익숙함이 47.1%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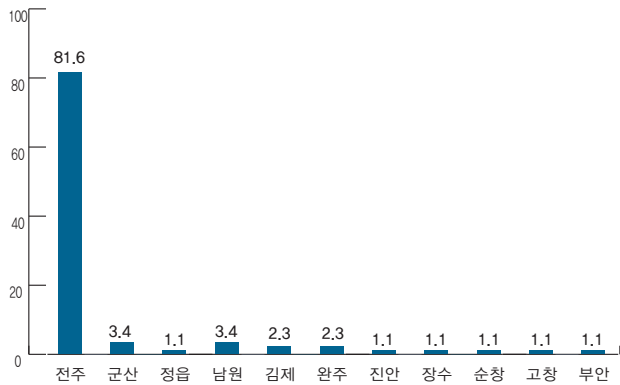
도내 공공기관 종사자는 전라북도가 고향인 경우는 51.9%, 고향이 아닌 경우 48.1%로 나타났고 현재 직장의 평균 근무년수는 8.6년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로 전출 시의 이주 형태는 본인만 혼자 이주가 67.6%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경우가 27.5%로 그 뒤를 이어 나타났으며, 현재 생활하고 있는 가구의 형태로는 혼자 생활한다가 52.3%로 가장 많았고 부부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형태가 28.1%로 뒤이어 많았다. 공공기관직원이 전라북도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생활기반시설확충이 29.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이 28.8%로 많았다.

향후 전라북도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은 전체적으로 63.8%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속 생활하고 싶은 이유로는 쾌적한 생활환경이 38.8%로 높게 나타났다.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교육 문제가 24.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제적 문제가 20.7%로 많았으며, 은퇴 후 희망 거주지의 1순위가 전북인 경우 시군별 희망 지역은 전주가 81.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군산과 남원이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도내 출신 수도권 대학생의 귀향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



<도내 공공기관 종사자의 은퇴 후 전라북도 희망 시군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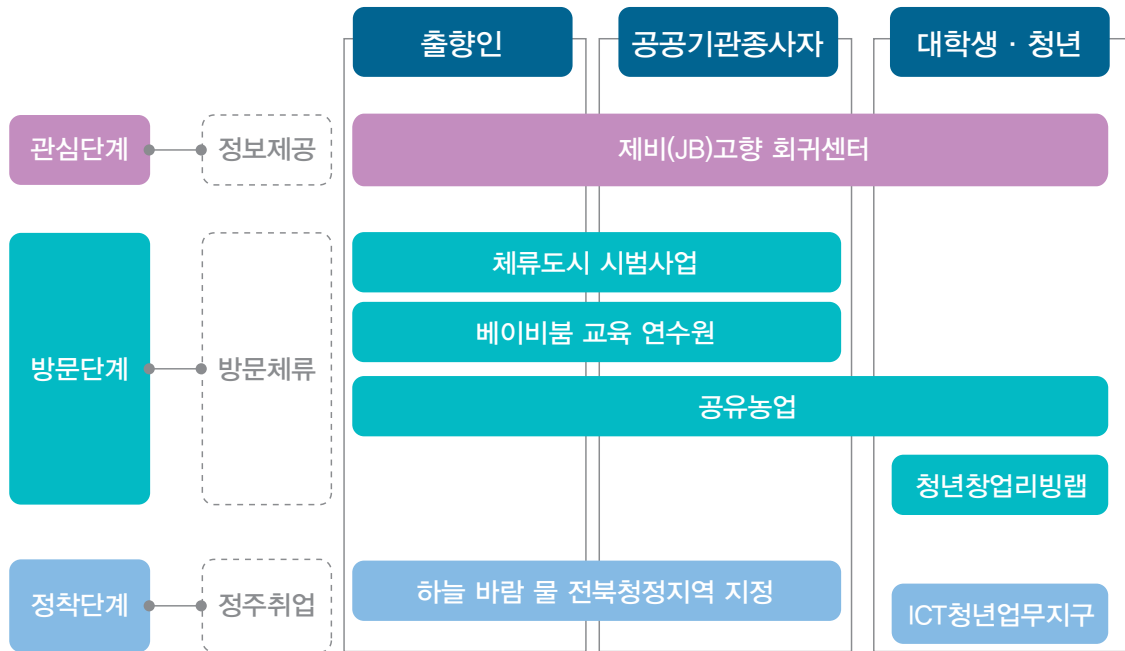
## 4. 인구유입 추진전략

도시민의 지방이주는 연구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관심단계, 방문단계, 정착단계의 3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지고 있다. 전라북도 인구유입정책은 귀농·귀촌인과 청년의 이주단계를 고려하여 관심단계, 방문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관심단계는 지역이주를 위한 교육 및 지역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방문단계는 단기방문이나 중장기 체류와 같은 지방이주 경험제공, 정착단계는 거주지 및 일자리 제공과 같은 정주지원이 필요하다.

단계별 인구유입 사업으로 관심단계에서는 지방이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매칭 등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제비(JB) 고향회귀센터조성을, 방문단계에서는 체류도시 시범사업, 베이비붐 교육연수원, 공유농업, 청년참여형 리빙랩 사업을, 정착단계에서는 하늘·바람·물 전북청정지역 지정,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사업을 제안하였다.

<단계별 인구유입 전략>



<단계별 인구유입 제안사업>

단 계	사업명	세부사업
관심단계	제비(JB)고향회귀센터	제비(JB)로컬카페 & 콜센터 교육 및 일자리 매칭 전북이주 업무협약
방문단계	체류도시 시범사업	사이버 도민증 발급 논밭 소셜 다이닝 동부권 대지예술제
	베이비붐 교육연수원	베이비붐 노후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원 베이비붐 직업훈련 교육관 및 직업 체험관 전북이주자 인재은행
	공유농업	공유농업 지원조례 제정 공유농업 플랫폼 구축 유형별 공유농장운영: 배당 공유형, 생산품 공유형
	청년참여형 리빙랩	지역대학 연계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혁신기업 연계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정착단계	하늘·바람·물 전북 청정지역 지정	하늘·바람·물 전북 청정지역 지정 유형별 조성: 정주형, 체험형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ICT 청년업무지구 시범지역 선정 ICT기업의 전북지부 유치 5G 인프라 구축 ICT 청년업무지구 지원단 구성·운영

## 제비(JB) 고향회귀센터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까지 전라북도이주지역을 확장하고 농업이나 어업 등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문직, 서비스업 등 다양한 직군의 전라북도 유입을 위한 종합적 지원센터 역할이 필요하다.

서울에 소재를 둔 제비(JB)고향회귀센터를 설립하여 전북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하며, 제비(JB)고향회귀센터를 전북이주 컨트롤타워로 하고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 전북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등의 연계기관으로 14개 시군에 전문 상담원을 두고 연계 및 추진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체류도시 시범사업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은 거주인구의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유동인구를 반영한 체류인구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생활인구, 제주도의 관광객을 포함한 계획인구, 프랑스의 체류인구, 일본의 체재교류인구 등 유동인구를 포함한 인구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전라북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합산한 관광객 중심의 체류인구를 보면 2014년 30,111,036명, 2015년 31,529,214명, 2016년 32,865,949명, 2017년 38,831,676명, 2018년 39,929,848명(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라북도의 체류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주된 생활은 현거주지에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거나 교육기관이나 군부대와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으로 되어있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사이버 도민증을 발급하는 등 체류인구의 전북도민화 정책이 필요하다.

## 베이비붐 교육연수원

2020년 이후 베이비붐세대의 대량은퇴로 인한 정책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지원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노후설계 뿐만 아니라 전직 경험을 활용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노후설계 인프라 기반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하여 베이비붐 세대 직업훈련 및 직업체험, 취업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 교육연수기관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노후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건강, 여가, 교육, 노동 등의 생활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취업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연수기관을 설치 및 운영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창출을 위한 창업스쿨, 유망직종 직업훈련, DB를 활용한 적합한 일자리 연계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한다.

## 공유농업

공유경제는 공유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자산을 중간플랫폼의 연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농업종사자와 농지가 많은 전라북도는 농지를 공유하여 농지로부터 생산된 식품이나 파생되는 서비스를 공유하는 공유농업을 추진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공유농업은 농업인에게는 필요한 자금확보와 판로개척을 도시민에게 재배과정 참여와 생산품 공유로 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공유농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농장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농장운영을 통해 창출된 수익은 참여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배당형 공유농장과 공유농업 참여자인 도시민들은 농작물 재배에 직접 참여하고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공유하며, 농장주는 공유농업 참여자들에게 농업관련 교육이나 농장캠프 등 문화이벤트 등의 체험을 제공하는 생산품 공유농장 등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 청년참여형 리빙랩

전라북도 인구유출에서 청년들이 전라북도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인데 전라북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계한다면 도내유출 청년인력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대학생이나 청년이 직접 문제해결의 아이디어 발굴, 필요한 기술연계 또는 기술개발, 프로토타입 개발, 현장에 접목, 피드백을 통한 개선, 문제해결로 이어지는 전체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은 물론 창업이나 일자리와 연계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지역 정주의 효과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 하늘·바람·물 전북 청정지역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의하면 귀농과 귀촌의 첫 번째 이유로 “자연환경이 좋아서”를 선택할 정도로 이주지역 선택 시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악취 없는 맑은 공기, 오염 없는 맑은 물,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공기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전라북도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개발규제가 필요하다.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구와는 별도로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마을단위의 소규모 지역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인증하는 하늘·바람·물 전북 청정지역을 지정하여 단기 휴식이나 장기적으로 자연환경

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전북이주를 유도한다.

##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최근 청년들은 생태나 전통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에서 살면서 IT기반의 첨단산업에 종사하고자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 포틀랜드의 키포크시티 또는 일본 가미야마의 IT분야 위성사무소 콤플렉스 등이 있다. 전라북도차원에서 자연친화적 환경과 IT첨단산업이 결합된 청년업무지구를 조성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종의 전북진입과 그에 따른 전문인력의 유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태적 환경이 우수하면서 ICT 첨단산업유치에 적극적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전라북도 ICT 청년업무지구 시범사업을 추진 한 후 성과를 보고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ICT청년업무지구는 업무공간, 숙박공간, 문화공간, 휴식공간, 텃밭공간, 생태공간 등 업무와 휴식 및 주거가 가능한 생태적 라이프스타일 복합지구로 조성한다.

### <참고문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9). 전라북도 체류인구현황
- 김동영 외. (2016). 전라북도 인구변화양상에 따른 대응전략. 전북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8). 귀농귀촌 실태조사
- 통계청. (2019). 국내인구이동현황